

# 제 5회 이사회 의사록

2007. 5. 21(월) 16:00

한 국 관 광 공 사

## 2007년도 제 5회 이사회 의사록

1. 일 시 : 2007. 5. 21(화) 16:00

2. 장 소 : 16층 회의실

3. 안 건

(심 의 안건)

◎ 정관 개정(안) : 수정의결

4. 재적 이사 : 8명

5. 출석 이사 : 7명

6. 참 석 자

이 사 강 광 호

이 사 최 갑 열

이 사 김 지 상

이 사 신 진 기

이 사 도 영 심

이 사 정 의 선

이 사 김 향 숙

7. 의 사 록 : 붙임

의 장 : 사장 직위가 공석중인 관계로 규정에 의거 부사장인 제가  
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이사회 운영규정  
제2조에 의거 2007년도 제 5회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.

(의사봉 타봉)

의 장 : 먼저 지난 제 4회 이사회 안건인 임원추천위원회운영  
규정 제정(안), 이사회운영규정 개정(안) 심의결과 및  
버지니아공과대학 사건 관련 시장동향 및 대응방안 보고,  
금강산면세점 영업 현황 보고, 제4회 대학생광고대상  
공모전 개최 보고, 2007 ASTA 제주총회 개최결과 보고에  
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본 회의를 진행 하도록  
하겠습니다. 기획조정실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기획조정실장 보고하다)

의 장 : 방금 마친 제 4회 이사회 결과보고에 대하여 이견이  
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의 장 : (각 이사들 이견 없음을 확인)

의 장 : 이견이 없으시면 본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 
오늘 안건은 심의안건인 정관 개정(안) 1건이 되겠습니다.  
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전 우선 이사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 
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당초 오늘 이사회에서는 공사

“정관 개정(안)”과 “임원추천위원회 구성·운영(안)”을 심의할 계획이었습시다만, 노동조합과의 의견차이로 “임원추천위원회 구성·운영(안)”을 상정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. 이점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, 조속한 시일 내에 상정될 수 있도록 노조 측과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. 지난 4회 이사회 개최 시 이사님들께서 의결하신 “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르면,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 공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인이 포함되어야 하며, 노사합의로 선정된 복수의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 이 부분에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. 아울러 향후 개최되는 임원추천위원회에는 공사 사장 모집에 응모 하시는 이사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 심의안건이 정관 개정(안)에 대하여 법무 팀장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(법무팀장 제안설명하다)

의 장: 방금 설명 드린 정관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정의선 이사 : 공사 영문명칭이 예전 이사회에서 KTO로 바뀌었는데 다시 KNTTO로 복귀하는 것입니까?

의 장 : 예전 이사회에서 바뀐 것이 아니고 의결 유보되었던 것입니다.

김지상 이사 : 그 당시 차기 이사회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. 그냥 그대로 사용 한다면지, 아니면 개정한다든지 방향을 정해 다시 상정했어야 했는데 그냥 흐지부지 됐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어디에는 KNT0 어디에는 KTO로 돼 있어 다소 혼란스럽습니다.

의 장 : 이번 정관 개정(안) 상정 시에도 검토를 했습니다. 바꿀 필요성도 있지만 법적으로 타기관의 영문명칭과 충돌하는 문제도 있습니다. 좀 더 고민해 보고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 이사님들께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김지상 이사 : 정관 개정(안)에 보면 이사회 의결 사항 중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가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·출연 및 채무보증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러면 종전에는 출연이나 채무보증 건을 이사회에 올린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는데, 현재까지 해당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?

의 장 : 카지노 자회사 설립 시 모회사인 공사에 채무보증을 요청해온 적이 있었는데 거절했던 사례가 있습

니다. 현재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해 정부로부터 900원을 대출받을 당시 중문골프장을 채무담보물로 설정한 경우가 유일한 사례라고 기억합니다.

김지상 이사 : 출연 사례는 어떻습니까?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?

의 장 : 태권도 재단 발족 시 100만원 정도 출연하는 등 주로 소액인 사례가 전부이며, 기부금으로 회계처리를 했습니다. 좀더 알아보고 특별한 사례가 있을 경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.

김지상 이사 : 타 기관에서는 출연이라는 명목으로 과다 지출하는 사례가 많은데 공사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다행입니다

신진기 이사 : 정관이 1962년도에 제정되어 28번째 개정되었습니다. 이번 개정 동기는 정부의 공공기관운영법 제정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을 위한 개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, 내용이나 문구 등 구체적인 작업이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.

의 장 : 감사합니다.

김향숙 이사 :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

제6조의 공고방법에서 공고는 한국일보에 게재한다고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?

의 장 : 제정 당시부터 1개 매체를 지정하여 게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. 특별히 매체를 바꿀 이유도 없었습니다.

김향숙 이사 : 제12조의 각호를 보면 1호, 3호는 개조식으로 되어있고 2호는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. 2호의 표현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15조에서 보면 제목에는 주식명부라고 되어있고 내용에는 주주명부로 되어 있습니다.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. 제17조의 의결에서 띄어쓰기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구요, 제28조에서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, 내용 중 재판 외의 행위란 어떤 행위를 말하는지 그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. 제29조는 문장 표현을 좀 더 명확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내용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. 제31조에서 직원의 임면과 관련, 제2항에 임용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면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.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?

의 장 : 제28조의 대리인 선임 관련 조항에서 재판외의

행위란 입찰참가나 계약체결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. 그런 경우에 임원이나 직원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제29조에서 “소”란 소송을 말합니다. 그리고 제31조의 임면은 채용과 면직을 말합니다. 임명을 위한 채용 시 기준이 규정되었으며, 면직과 관련 된 기준은 정관에는 별도의 조문이 없고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

법무팀장 : 제15조는 확인 후 제목인 주식명부 또는 내용상의 주주명부를 문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12조의 단서조항은 주로 전체문장을 모두 써주기보다는 해당 호의 준용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
김지상 이사 : 포괄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. 공공기관운영법과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정관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? 그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는 것인데 우리가 임의로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

법무팀장 : 문구 수정만 가능합니다. 15조의 경우 종전 표현이 그대로 이어진 것인지 또는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하여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.

김지상 이사 : 제25조 제4항에서 임원의 직무를 보면 “감사는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주주총회와



이사회에 제출한다”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주주총회가 빠졌지요? 그러면 이 조항 변경은 주주총회의 권한을 약화시킨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까?

법무팀장 : 기존에 각각의 법률들에 의해 관리되던 공기업들을 공공기관운영법으로 통합관리하게 되면서 주주의 이익보장과 권한에 대하여 약간씩 차별을 두고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.

신진기 이사 : 제15조에서 주식명부와 주주명부에 대해 다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두 명부는 각각 엄연히 별개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오늘 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 또는 수정이 필요할 경우 실무부서에서 추진해 주시고 그 결과만 이사들에게 보고해 주시는 것이 업무 추진 과정상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

김지상 이사 :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

의 장 : 예 감사합니다

정의선 이사 : 오늘 이사회에서 의결되면 정관 개정은 그대로 진행되나요?

의 장 : 장관의 승인과 주주총회 의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.

정의선 이사 : 그러면 공사의 영문명칭과 로고는 계속 병용되는것입니까? 코리아 스파클링도 그렇고 다소 혼란스러운데 여기에 대해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

의 장 : 코리아스파클링과 공사 로고는 엄연히 다릅니다.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사 영문명칭 관련사항은 좀더 검토를 해서 향후 이사회에 다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.

의 장 : 그러면 제15조의 주식명부와 주주명부의 차이는 상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이사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
의 장 : (각 이사들 더 이상 의견 없음을 확인함)

의 장 :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정관 개정(안)은 일부 내용에 대한 재확인 및 문구 변경을 실무부서에서 추진하고 그 결과를 이사님들께 보고한다는 전제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

(의사봉 타봉)

의 장 : 그러면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치겠습니다. 바쁘신 중에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07년도 제5회 이사회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(의사봉 타봉)

공사 이사회 운영규정 제 10조 제 2항에 의거 출석한 이사와  
감사가 기명 날인하다.

2007. 5. 21.

이 사 강 광 호

이 사 김 지 상

이 사 최 갑 열

이 사 신 진 기

이 사 도 영 심

이 사 정 의 선

이 사 김 향 숙